

## 날카로워진 檢·쇠방망이된 法 광주·전남 정치권 '삭풍의 계절'

### 뉴스초점 엄해진 선거법 수사·재판

6·4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광주·전남지역 정치인과 선거사법들이 '좌불안석'이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12월 4일 만료)가 2주 밖에 남아 선거 후폭풍이 잠잠해질 시기지만 정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칼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날카롭고 선거법에 대해 '쇠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법원도 엄격한 사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사법 전국 최대=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561명.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치로만 보면 그만큼 선거 풍토가 혼탁했다는 얘기가.

광주지검의 경우 280명을 입건, 161명을 기소했다. 여기에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374명까지 치솟는다. 전국에서 두 번째인 인천보다 70건이상 많다. 광주지검 외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순천지검은 143명 입건(기소 65명), 목포지검 100명(기소 66명), 해남지검 30명(기소 13명), 장흥지검 8명(기소 5명) 등의 순이다.

◇검찰 단속 칼끝, 더 날카로워져=지방선거 후 6개월째 접어들면서 후폭풍이 사그라들법한데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당장,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은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민선 6기 들어 노정장이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두석 장성 군수도 음식을 제공하고 군청을 돌며 지지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부인, 선거 사무장, 지역 모인 회장 등 3명과

6·4 지방선거 시효만료 2주 앞  
광주지검, 전국 최대 입건  
노회용 동구청장 사전영장  
법원, 올려치기 양형도 잇따라

함께 기소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김철주 무안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경우 순천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다음주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정현 광주시장도 지역 유권자 단체 대표와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쇠방망이'가 '쇠방망이'로=법원의 엄벌 의지도 눈에 띈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했던 예전의 '쇠방망이' 처벌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광주교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온다. 되도록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재판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작량(酌量·집착해서 해아림)감경'을 엄격히 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이날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법원은 이날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기사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1심(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150만원~700만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B(57)씨도 항소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정치인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C(55)씨도 항소심에서는 1심(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빵~뚫렸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4차로(국도 29호선)가 준공돼 21일 오후 4시부터 전면 개통된다. 이 도로는 광주 동구 내남동에서 화순을 대리까지 총 연장 5.7km로 2008년 2월 착공, 1237억원을 들여 6년여 만에 완공됐다. 20일 오후 개통을 앞둔 도로 모습. <헬기조정 광주시소방항공대 기장 박창순·부기장 장화식>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 한국문단의 새 이름, 당신이 주인공

2015 광주일보 신춘문에  
내달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잠재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래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4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24)

#### ■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결정투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응모와 응모분야를 기입하고

원고 낱자에 필명·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요.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5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 광주~화순 4차선 오늘 전면 개통

내남동~교리 5.7km 완공

소요시간 10여분으로 단축



화순 너릿재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29호선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가 착공 7년 만에 마무리돼 21일 오후 4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국도 가운데 1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화순-광주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20일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시 동구 내남동에 이르는 국도 29호선 5.7km구간(4차로)의 사업이

당초계획(2015년 1월)보다 조기 완공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착공한 국도 29호선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는 총 공사비 1237억원(시설비 969억, 보상비 268억)이 투입됐다. 화순-광주간 국도는 1일 교통량(2013년 기준) 4만9331대로 호남지역 국도 가운데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다. 특히 광주에서 화순을 거쳐 보성이나 장흥, 주암과 벌교 등을 오가는 운전자들이 화순 시가지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일대의 교통 여건이 한 단계 개선될 전망이다.

너릿재 구간 개통에 앞서 광주 동구 남계마을~지원교차로 2.4km와 화순 대리고차로 1.4km 구간은 지난해 10월에 개통한 바 있다. 너릿재 마지막 구간 개통으로 광주 동구에서 화순 대리 교차로까지 총 9.5km 전 구간이 이어지게 되면서 소요시간이 기존 30여 분에서 10여 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용 익산국도청장은 "국도 29호선 화순-광주간 9.5km 전 구간 개통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신대학교**  
제12회 광신대학교 음악콩쿠르  
일시 2014년 11월 22일(토)오후1시  
장소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실, 진리관4층 콘서트홀,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문의 062)605-1130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